

광주시·5개구청, 최저임금 급등에 생활임금 '발등의 불'

3년간 생활임금 최저임금의 130%로 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생활임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위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고, 자치단체별로 임금수준도 제각각이어서 어느 수준까지 올릴 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37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올랐다.

시간급이 단숨에 1000원 가량 오르면서, 생활임금을 턱까지 추격하게 됐다.

광주지역 생활임금제는 2015년 5월 조례 제정 후 같은 해 7월부터 시행중이다.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토록 한 제도로 시 분청과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자치구 공공부문 직접고용 근로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로 산정됐다. 시급과 월급은 2015년 7254원에 151만6086원, 2016년 7839원에 163만8350원, 올해 8410원에 175만7690원이다.

지난해 이같은 기준을 적용받은 공공부문 근로자는 광주시 519명, 동구 41명, 서구 137명, 남구 16명, 북구 48명, 광산구 75명 등 모두 836명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생활임금에도 손질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각각인 급여액이 당장 문제다. 올해 시급은 광주시가 8410원, 동구 7570원, 서구 7850원, 남구 7760원, 북구 7560원, 광산구 8600원, 월급은 광주시 175만7690원, 동구 158만

2130원, 서구 164만650원, 남구 162만840원, 북구 158만400원, 광산구 179만7400원이다.

산입 항목 등이 서로 다르다보니 시급 차액이 1000원 이상 나고, 일부 지자체는 최저임금에 추월당하기 직전이다.

시는 (대한노동사회연구소에 의해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를 위한 외부 용역을 진행중이다.

인상률도 관심사다. 기존대로 최저임금의 130%까지 인상할 지, 예산 부담과 공공과 민간 영역간 균형 등을 감안해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할지 고민이다.

시는 9월 초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한 뒤 같은 달 10일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고 증가된 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 효과가 있다"며 "16%나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적정 생활임금을 도출하고 용역을 통해 '광주형 생활임금'의 기틀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광주 동구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담배꽂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비닐봉지 및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 등이며, 증거물과 함께 서면 또는 전화로 동구청 환경청소과,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동구는 담배꽂초 등 휴대쓰레기 투기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는 20만원, 차량·손수레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구,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호응

광주 서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구는 지난 2월부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응급처치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기본적인 인명구조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응급처치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이론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CPR인형(심폐소생술 실습인형)을 이용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는 시간도 운영한다.

북구, 전국 일자리대상 공모 5년 연속 수상

광주 북구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전국 일자리대상 공모'에서 광주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9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일자리대상 공모'는 지자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주민들에게 공시하고, 실천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대책 추진체계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노력도 ▲단체장 의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과정 ▲추진 성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북구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정 인센티브도 4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북구는 그동안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념 아래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 직·간접 고용지원을 통해 목표치를 초과한 922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유망 중소기업 기술 경영혁신지원', '청년고용촉진 미래희망JOB 프로젝트', '무등산권 생태문화관광벨트 구축', '광주역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 등 구도심 활성화 Re-start up 일자리 프로젝트'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책들이 호평을 받았다.

광산구 분량동 더하기센터 가족체험 인기

옛 분량중학교를 새 단장해 도농교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더하기센터에서 '더하기지구협의회'(회장 홍기은)가 22일 '농부웃 염색하기' 행사를 열었다.

6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열린 '광산시민농부학교' 프로그램의 연장선. 당시 교육을 받았던 수료생과 광산구에서 도시텃밭을 일구고 있는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에 참여했다.

광산구는 지난 5월 도시농업의 이해, 텃밭 조성 및 가꾸기, 자연순환농법 등을 주제로 광산시민농부학교를 진행했다.

2주간 열린 이 교육과정에는 총 2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였다. 광산구는 시민농부학교 2기 심화과정을 10월로 예정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보상·임성리 철도 건설

현장 품질특별점검 실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전희광)는 혹서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4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보상·임성리 철도건설 현장에서 품질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품질특별점검은 철도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의 강도, 균질성(성분이나 특성이 고루 같은 성질), 내부결함의 유·무 조사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서중 콘크리트(기온이 높

내일 3일까지 전문기관과 합동

내구성·안전성 확보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비파괴 시험

아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시공계획서, 배합설계, 시험배합과 현장 배합수정의 적정시행 여부, 양생공정의 품질관리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품질관리 실패가 일부 미흡한 현상은 신속하게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발주부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희광 본부장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품질관리 인력을 철저히 관리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철도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철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동부취재본부장=김승호 기자

본사사령



▲김광춘 命

지역사회부 협동 담당 국장

전남서부취재본부장겸임

<2017년 7월 25일자>

"여름철 보양식 안심하고 드세요"

광주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개최



광주시는 24일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김종식 경제부시장 등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닭·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닭·오리

고기 시식회'를 가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해 38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영향으로 닭과 오리고기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 피해가 커지자 광주시는 소비촉진 시식회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김치축제 기간에는 오리고기의 안전성과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오리훈제를 제공한 시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닭과 오리고기는 검사관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시바이러스는 75°C에서 5분 동안, 또는 80°C에서 1분 이내 가 열하면 사멸돼, 익히거나 튀겨 먹으면 안전하다.

이윌러 광주시는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AI지역제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AI 외부 유입차단을 위한 축산허당 거점소독시설을 광산구에 1개소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 제한적 신닭 유통허용에 따라 소독·방역실태점검을 꼼꼼히 실시하는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완도·구례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 장 대 리
- 양도소득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 진단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